

섬김: 삶의 이유

성경 본문	마가복음 10:35~45
요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45절).
찬송	288장(통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16장(통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이과의 목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사람들은 왜 높아지고 싶어할까요?
2.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나누어 봅시다.



II. 생각 넓히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마 20:17-21 참조). 그런데 본문에는 야



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직접 여쭙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사람도 자신들의 어머니의 생각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1.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주의 영광 중에서 자기들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대답합니다(37절).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고하신 바로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막 8:27-31, 막 9:9:30, 막 10:32-24).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고난을 당하거나 죽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마 16:15-16)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훌륭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수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멘토나 되는듯이 또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듯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자기가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라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호되게 책망 받던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전과 같이 그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 때 자신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Not a Fan)>라는 그의 책에서 팬은 말로만 요란스럽게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며, 제자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팬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마 15:8)이며, 단순한 영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성경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주님과 친밀감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를 꿈꾸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두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열 제자가 들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두 제자 뿐 아니라, 열 명의 다른 제자들의 반응과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2. 예수님께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눅 6:31)라는 황금률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화해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저주어야 합니까? 누가 먼저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누가 먼저 섬겨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원하는 사람이, 혹은 기대하는 사람이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통치자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제자들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온 만물로부터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45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데 머물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바울 또한 그의 서신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는(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빌 2:6-9).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3.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셸 실버스타인의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The Giving Tre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 이 나무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고 타기도 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즐거운 놀이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소년이 자라서 더 이상 그네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무는 소년에게 맛있는 열매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집에 딸감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말했습니다.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불을 때서 더웁게 하세요.” 어느 덧 소년이 장년이 되어 돈을 벌러



나가기 위해 배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목적지로 가세요.” 나무는 자신의 몸통이 베어졌지만 행복했습니다. 멀리 떠난 소년은 한 동안 돌아오지 않다가, 백발이 되어 노인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밑동만 남아 있었고, 노인은 그 밑동에 걸터앉아 쉬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인간을 섬기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히 12:2).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인간을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 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III. 생각살기

1.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당신이 바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인간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소그룹이 교회나 이웃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